

'레전드' 잠수함 투수, KT 최초 우승 감독이 되다

이강철 감독, KT 정규시즌 우승 이끌어
지난해 정규시즌 2위 선물 이어 올해 우승

이강철(55) KT 위즈 감독이 팀의 새 역사를 열었다. KT는 10월31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2021 신한은행 쏠 KBO 정규시즌 1위 결정전에서 삼성 라이온즈를 1-0으로 이겼다. 2015년 1군에 뛰어들어 KT가 처음으로 정상에 서며 이 감독은 팀의 창단 첫 우승을 이끈 사령탑으로 구단 역사에 남게됐다. 현역 시절 통산 152승을 수확, 역대 다승 3위 '레전드' 출신의 이 감독은 2020시즌을 앞두고 KT 3대 사령탑에 올랐다. 2005년 KIA 타이거즈 2군 투수

코치로 지도자 생활을 시작한 그는 KIA 1군 투수코치와 넥센(현 키움) 히어로즈 수석코치 등을 거쳤다. 이후 두산 베어스 2군 감독과 수석 코치 등을 지냈다. 일찌감치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인정 받았던 이 감독은 KT와 함께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이 감독이 부임했을 때만 해도 KT는 '악팀'의 이미지가 강했다. 데뷔 첫 시즌인 2015년부터 3년간 꼴찌를 도맡아했다. 2018시즌 9위에 그쳤고, 2019년 6위가 최고 성적이었다. 그러나 이 감독이 이끄는 KT는 달

랐다. 지난해 정규시즌을 2위로 마쳐 팀에 첫 가을야구를 선물했다. 도전을 멈추지 않은 올해는 순위표 최상단을 차지했다. KBO리그를 주름 잡았던 '명투수'답게 팀을 투수 왕국으로 바꿔놨다. 올해 오드리사머 테스파이네, 윌리엄 쿠에바스, 고영표, 소형준, 배제성 등이 지킨 KT 선발 로테이션은 어디에도 밀리지 않는다. 주권, 김재윤, 이대은, 박시영 등의 불펜도 탄탄하다. 이 감독은 선수의 장점을 극대화시켜 성장을 이끌었다. 올 시즌을 앞두고 트레이드로 KT에 합류, 필승조로 우뚝 선 박시영의 변화에도 이 감독이 있었다. 이 감독은 박시영의 슬라이더에 주목했고, 슬라이더 위주의 피칭을 조언했다. 특급 슬라이더와 함께 박시영은 팀

의 '믿음'으로 거듭났다. 선수들은 물론 코치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열린 자세도 팀을 더 탄탄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됐다. 쉽지 않은 도전이었다. 늘 쫓는 입장이 익숙했던 KT는 올해 1위를 달리며 처음으로 '지키는' 야구를 했다. 어색한 자리에 자연스레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잘 나가던 팀은 시즌 막바지 하락세를 타며 위기를 겪기도 했다. 이 때 이 감독이 나섰다. "우리 정말 잘하고 있다"면서 디그아웃에서 먼저 웃는 얼굴로 농담을 건네며 경직된 분위기를 풀었다. 그야말로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한 셈이다. 물론 부드러운 모습만 내세우진 않는다. 외국인 선수들이 속을 썩일 때는 일부러 언론을 통해 쓴소리를



할 때도 있다. 팀의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고 봤을 때는 냉정한 지적도 마다하지 않는다. 선수단이 불리한 판정을 받았다고 생각할 때는 심판에 '배치기'를 할 정 도로 강한 어필도 한다. 선수들을 위해 나서는 감독의 모습은 선수들에 단순한 말 이상의 힘을 전해주기도 한다. 이제 이 감독은 '통합 우승'이라는 마지막 관문을 남겨두고 있다.

광양시 선수들, 제41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기량 뽐내

14개 종목 34명 참가 금메달 3개·은메달 6개 획득



지난 10월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경상북도 일원에서 개최된 '제41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 광양시 선수들이 전라남도 대표로 참가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맘껏 뽐냈다. 광양시는 14개 종목 34명(선수 31, 임원 3)의 선수단이 참가해 금메달 3개, 은메달 6개를 획득하는 쾌거를 거

뤘다. 특히, 72세 고령으로 출전에 문뜰 단 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세풍 출신 김종희(지체 1급) 선수와, 신장 투석 치료 중에도 휠체어 탁구 종목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한관덕(지체 1급) 선수의 선전으로 광양시 장애인 체육의 위상을 드높였다. 볼링 종목에서 신백호 선수가 금·은 메달의 영예를 안았고, 최형철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했다. 육상 종목에서는 임여울, 문광식 선수가 각각 은메달을, 게이트볼 종목에서 이우화, 성인덕 선수가 각각 은메달을 차지했다. 조영진 체육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꾸준히 노력해 값진 결과를 이뤘던 선수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며, "시는 앞으로 더욱 많은 관심을 갖고 장애인 체육을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프로야구 포스트진출 실패 SSG, 정의운 등 15명 방출 포수 정상호는 은퇴기로

포스트시즌 진출에 실패한 SSG 랜더스가 선수단 개편에 나섰다. SSG는 15명에게 재계약 불가를 통보했다고 31일 밝혔다. 투수 방출 명단은 총 8명이다. 신재웅, 정영일, 강지광 등이 찬바람을 피하지 못했다. 외야수 정의운도 팀을 떠난다. 2년 전 13홈런을 기록했던 정의운은 지난해부터 입지가 좁아졌다. 지난해 76경기에서 홈런이 1개에 불과했고, 올해도 62경기 출전 타율 0.230 홈런 7개에 그쳤다. 또 다른 외야수 고종욱 역시 SSG와의 인연에 마침표를 찍었다. 방출 명단에 이름을 올린 외야수는 4명이나 된다. 포수 정상호는 은퇴를 택했다. 지난해 두산 베어스에서 은퇴했던 정상호는 이를 번복하고 SSG 소속으로 1년을 소화했다.

▲SSG 방출 선수 명단(총 15명)

- 투수(8명): 강지광, 김찬호, 김보승, 신재웅, 정수민, 정영일, 최경태, 허웅
- 포수(1명): 정상호
- 내야수(2명): 권혁찬, 최수빈
- 외야수(4명): 고종욱, 김경호, 이재록, 정의운

뉴시스



이재성, 독일 분데스리가 1부 '데뷔골'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에서 뛰고 있는 국가대표 이재성(마인츠)이 1부 데뷔골을 터뜨렸다. 이재성은 30일(한국시간) 독일 빌레펠트의 쉬코 아레나에서 벌어진 빌레펠트와의 2021~2022 분데스리가 10라운드에서 선발 출전해 데뷔골을 기록했다. 마인츠는 이재성의 선제골을 발판삼아 2-1로 승리했다. 이재성의 분데스리가 1부 통산 1호골이다. 지난 시즌까지 분데스리가 2부 홀슈타인 킬에서 세 시즌을 뛰었던 이재성은 이번 시즌을 앞두고 마인츠 유니폼을 입었다. 이번 시즌 1골 1도움을 기록하게 됐다. 마인츠는 5승1무4패(승점 16), 5위로 올라섰다. 이재성은 0-0으로 팽팽한 전반

25분 역수 기회에서 공에 대한 집중력을 살려 포문을 열었다. 카림 오니시위의 슛이 골키퍼에 맞고 흐른 것을 빠르게 쇄도해 오른발로 밀어 넣었다. 스피드와 집중력이 합작한 골이었다. 그러나 마인츠는 전반 42분 라우르센에게 동점골을 허용해 전반을 1-1로 마쳤다. 마인츠의 집중력이 더 강했다. 마인츠는 후반 23분 부르크하르트가 상대 공을 가로 채 다시 달아나는 골을 터뜨렸다. 결승골이 됐다. 이재성은 2-1로 앞서자 후반 32분 교체됐다. 프라이부르크의 정우영은 그로이터와의 경기에서 선발 출전해 후반 30분까지 75분을 소화했다. 프라이부르크는 가법계 3-1 승리를 거뒀다.

피겨 기대주 이해인, 시즌 첫 그랑프리 7위로 마무리

전체 1위 합계 265.08점 러시아 카밀라 발리에바

한국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기대주 이해인(16·세화여고)이 시즌 처음으로 나선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시니어 그랑프리 대회에서 7위를 차지했다. 이해인은 31일(한국시간)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밴쿠버에서 열린 2021~2022 ISU 피겨 시니어 그랑프리 2차 대회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TES) 63.77점, 예술점수(PCS) 63.60점으로 127.37점을 받았다. 쇼트프로그램에서 62.63점을 기록한 이해인은 합계 190.00점으로 12명 중 7위에 이름을 올렸다. 쇼트프로그램(8위)보다 순위가 한 계단 상승했다.

올 시즌 새 프리스케이팅 프로그램인 '오마주 투 코리아'를 들고 나온 이해인은 첫 과제인 더블악셀을 무난히 수행했다. 다만 트리플 러츠-트리플 토루프 콤비네이션 점프에서는 쇼트 프로그램 때와 마찬가지로 쿼터랜딩(점프 회전수가 90도 수준에서 모자라는 경우) 판정을 받아 수행점수(GOE) 0.34점이 깎였다. 큰 실수없이 연기를 이어가던 이해인은 트리플 러츠-싱글 오일러-트리플 살코에서 GOE 1.49점을 잃었다. 트리플 플립에서도 GOE 1.44점이 감점됐다. 나머지 연기는 무탈하게 마쳤다. 쇼트프로그램과 같은 큰 차이 불안도



보이지 않았다. 전체 1위는 합계 265.08점의 카밀라 발리에바(러시아)에게 돌아갔다. 엘리자베타 토티미세바(러시아)가 232.88점으로 뒤를 이었다. 남자 싱글에서는 네이션스 체(미국)가 307.18점의 압도적인 점수로 1위에 올랐다. 2위 제이슨 브라운(미국·259.55점)과 50점 가까이 차이가 났다. 뉴시스

'우상' 호날두 앞에서 한없이 작아진 손흥민...평점 5

토트넘 유효슈팅 0개...손흥민 평점 5·케인 4 혹평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의 손흥민(토트넘)이 자신의 우상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맨유) 앞에서 한없이 작아졌다. 손흥민은 31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2021~2022시즌 EPL 10라운드에서 선발 출전해 플라임을 뒤흔으나 공격

포인트 사냥에 실패했다. 우상 호날두의 1골 1도움 활약과 함께 토트넘의 0-3 완패를 지켜봐야 했다. 토트넘은 유효슈팅을 단 1개도 시도하지 못하는 졸전을 펼쳤다. 손흥민은 과거 수차례 호날두를 우상이자 롤모델이라고 강조했다. 2019년 7월 이벤트 성격이 강했던 친선대회 인터내셔널 챔피언스 컵(ICC)에서

상대인 이후 2년3개월 만에 이뤄진 맞대결이었다. 통산 세 번째 대결이자 EPL에선 처음. 호날두는 1골 1도움으로 건재함을 과시했다. 선제골을 터뜨렸고, 후반 19분에는 카바니의 골을 돕는 정교한 패스를 선보였다. 손흥민은 전반 세차례 슈팅 기회를 모두 살리지 못했다. 영국 '풋볼런던'은 손흥민에게 평점 5점을 부여하며 슈팅 장면을 소개했다. 파트너 해리 케인에게도 4점을 주는 등 토트넘 선수들을 전반적으로 혹평했다. 축구통계전문 '후스코어드닷컴'도 손흥민에게 6.2점을 줬다. 루카스 모우라가 7.4점으로 팀 내에서 가장 높았다. 호날두는 양 팀 통틀어 유일한 8점대로 가장 높은 8.5점의 평점을 받았다. 또 호날두는 경기 최우수선수(MVP)에 해당하는 킹오브드매지에 선정됐다. 관 3만4000여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80.5%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손흥민은 10위 이내에 없었다. 뉴시스

이다영, 그리스 진출 첫 라운드 MVP 수상

이다영이 그리스리그 진출 후 첫 라운드 최우수선수(MVP)에 등극했다. 이대영, 이대영이 속한 그리스 여자프로배구팀 PAOK는 31일(한국시

간) 구단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에 이대영의 3라운드 MVP 수상 사진을 게재했다. 라운드 MVP는 대회를 주관하는 그리스배구연맹이 뽑는다.

이다영에게 수상의 영예를 안겨준 경기는 지난 21일 올림피아코스 피레우스전이다. 그리스리그 데뷔전이기도 했던 이 경기에서 이대영은 동료 공격수들과 안정적인 호흡을 보이며 팀의 세트스코어 3-0(25-16 25-20 25-21) 완승을 지휘했다.